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개최

내일까지 무주태권도원서

2018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무주태권도원에서 개최된다.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은 장애학생들의 직업기능 향상과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학생의 직업교육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각장애, 지체장애 영역과 발달장애 영역 학생들의 직업경진이 격년으로 진행되는 대회이다.

1968년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

진대회로 시작하여, 올해로 제47회를 맞이하는 이번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은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특수학교, 지체장애 특수학교 총 4개 분과 학생 230여명이 참여하여 실력을 뽐내게 된다.

‘내 꿈을 디자인 하는 시간’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은 청각장애 분과에서 제과제빵·시각디자인·커피바리스타 종목, 시각장애 분과에서 점역교정·음악·워드 전맹·워드 저시력 종목, 지체장애 특수학교 분과에서 한지공예·사무용품 조립·스티커 붙이기 종목, 지체장애 특수학교 분과에서 냅킨아트·과학상자

조립·사무행정 종목 등 총 13종목이 진행된다.

개막식은 오늘 오후 2시부터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진행되며, 특히 YB밴드와 함께하는 ‘꿈을 찾아 나는 나비’ 축하공연도 마련돼 있어 보다 즐겁고 흥겨운 축제의 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대상 1명에게는 국무총리상이 수여되며, 각 부문별 금상에겐 교육부장관상, 은상·동상·장려상·대회장상에는 전라북도교육감상이 주어진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참여 학생의 76.2% 학생이 시각·지체장애 학생이며 그 중 뇌병변 장애학생들이

49.5%에 이르는 만큼 참여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특수학교(급) 실무진들과 학생안전관리팀이 태권도원을 방문해 학생들의 동선을 점검하고, 숙소 내 휠체어 용이동 경사로와 방 별 화장실 핸드바를 설치하는 등 편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위해 많은 장애학생들이 오랜 시간 동안 노력했을 것”이라면서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장애학생들의 전문 직업기능이 신장되어 다양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부모 대상 10월 교육특강 ‘다채’

전북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통해 신청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10월에도 다양한 학부모 대상 교육특강을 마련한다.

자녀의 행동을 돕는 학습친구 엄마샘, 책모임 마중물샘, 글쓰기, 책 만들기 등 다양한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중부비전센터 교육장에서는 오늘부터 25일까지 4회에 걸쳐 안권순 동화연구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연극으로 들려주는 동화’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고, 익산교육지원청에서는 도내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20일까지 4회에 걸쳐 세움부모교육연구소 권선이 대표를 초빙해 ‘자녀 양육에 따른 부모역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전주중부비전센터 교육장에서는 도내 독서동

아리 활동자 및 유경험자 100명을 대상으로 철학자이자 인문학자인 강유원 박사와 함께 ‘역사로 이해하는 오늘’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11일과 18일 최명희문학관 세미나실에서 최명희문학관 학예연구사이자 극작가인 최기우 강사가 ‘최명희 혼불 사각사각 디딤돌’ 글쓰기에 대해 강의한다. 전주 알마테르 문화공간에서는 15일과 22일 동화작가 박서진 강사와 함께 ‘나만의 책 만들기, 그림동화책’을, 16일과 23일은 원광대학교 박태건 교수와 ‘글쓰기,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시집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오는 23일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일하는 부모를 위한 부모성장 달빛학교가 이어지며 원광대학교 반덕터 20일까지 4회에 걸쳐 세움부모교육연구소 권선이 대표를 초빙해 ‘자녀 양육에 따른 부모역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도내 학부모는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전북학부모지원센터(<http://parents.jje.go.kr/main/main.jje>)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생기원, 과학·생산기술 고급인력 양성 ‘맞손’

대학원 내 대학-연구원 협력

석·박사 학위 과정 개설

전주대(총장 이호인)는 지난 2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과 대학-연구원 협동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대 대학본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대학교 이호인 총장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성일 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두 기관이 체결한 양해각서는 ▲인력, 장비, 시설, 실험실습 기자재 등의 공동 활용 ▲전주대 대학원 내에 별도의 대학-연구원 과정 설치 및 운영 ▲실험실습, 논문연구, 시험사업 연구의 인력 교류 등을 담고 있다.

생기원은 생산기술 분야의 기술개발과 실용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지원 및 성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동 실험실 운영과 전문 연구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서 산·학·연 공동 협력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성일 원장은 “우리 연구원은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도 일부 책임감을 느끼고 있



전주대가 지난 2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대학-연구원 협동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다”라며, “전주대와 협업하면서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북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주대와 생기원은 양 기관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공유하며, 우리나라 과학기

술정책에 부응하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두 기관의 협동 석·박사 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현장 중심의 창의실용인재 양성의 좋은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대학은 교

육·연구·봉사 세 가치를 모두 갖춰져야 하는데, 이번을 협약을 계기로 연구 분야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삼례 초중고 교장단협, KAIST 이승섭 교수 초청 학부모교육 특강

지역 발전을 위해 유, 초, 중, 고가 함께 모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삼례지역 초·중·고 교장단 협의회(회장 삼례중앙초 임기대 교장)는 KAIST 이승섭 교수를 초청,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완주향토에 술문화회관에서 삼례지역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학부모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학부모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와 진학의 방향을 제시하고,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행사는 이해선 삼례중 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식전행사로 삼례중앙초 교사들의 노래 공연과 삼례공고 학생들의 비보이 공연 등이 마련된다.

또한 이날 지역학교 보내기 홍보를 위해 삼례 지역 고교(한별고, 삼례공

고) 미니 입시 설명회도 열린다.

이번 행사는 삼례 지역에 위치한 삼례초, 삼례동초, 삼례중앙초, 삼례중, 삼례여중, 삼례공고, 한별고가 참여한다. 학교 관계자는 “삼례에 위치한 모든 학교가 함께 모여 처음으로 학부모교육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개방형직위 ‘감사담당관’ 공모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공직 사회의 경쟁력 제고 및 감사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개방형직위 3급 상당으로 감사담당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용하게 되는 개방형직위 감사담당관은 도교육청 소속 기관에 대한 감사·조사업무, 반부패 청렴업무 등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공직 내·외부의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개방형직위의 직급을 4급 상당에서 3급 상당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임용기간은 2년으로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채용관련 추진일정은 오는 15일부

터 19일까지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원서접수를 하고, 별도로 구성된 선발 시험위원회의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해 12월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후 임용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개모집에 공직분위기를 쇄신할 전문성을 갖춘 뛰어난 인재가 많이 지원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유능한 감사담당관 공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전북교육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자치 조례 제정 공청회 실시

전북교육청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공청회는 오늘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학교자치 조례 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학교자치 조례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들의 권한과 심의를 활성화해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보강하고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되고 있어 각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성 기자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

전주시